

일본의 사회적경제

강 내 영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일본의 「사회적경제」

2011. 5.3
강 내용

강의 순서

1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의와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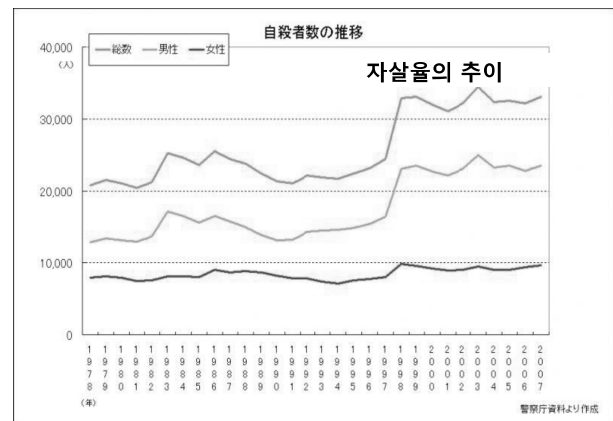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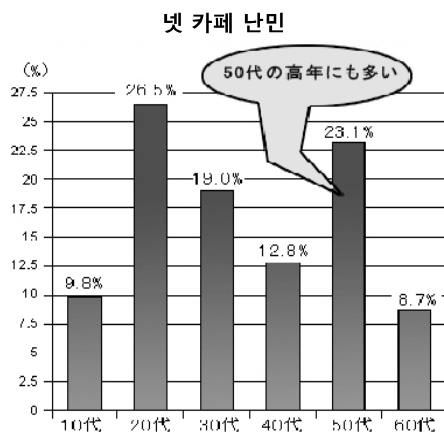
일본 『사회적경제』의 실제 사례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의와 현황

-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 라이프스타일이나 근로환경의 변화와 동반하여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개호·복지, 지역 재생, 마을만들기, 환경보호, 빈곤문제의 대두
- 나아가, 커뮤니티의 붕괴로 인해 노인의 고독사, 자살, 소년살인, 학교 및 사회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 사회적 병리가 확산되고 있음
- 출생률 저하·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 구축의 중요한 근간으로 「사회적경제」 기대



1) 정의

◆2002년6월20일 "Social Economy Europe"의 선언에 의한,

- ① 자본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목적이 우위성
- ② 자발적으로 열려있는 멤버십
- ③ 멤버십에 의한 민주적 통제
- ④ 멤버·이용자 및 일반이익의 결합
- ⑤ 연대와 책임의 원칙적용 양호
- ⑥ 자율적 경영과 공적 권위로부터의 독립
- ⑦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멤버의 이익 그리고 일반 이익을 위해서 이용

* 今村(이마무라) 외 다수의 학자들이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정의로 인용

2) 연구 및 적용 동향

●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주로 유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영국의 CIC(커뮤니티 이익 회사)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면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는 사회적경제 라는 용어보다는 연대경제나 NPO라는 용어가 더 대중적.

● 분류하자면,

• 연구자 그룹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유럽에서는 제3섹터로 정의하기도 하나 일본에서는 민관 합자회사를 제3섹터로 사용함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협동경제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함.
주로 유럽(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연구 중심.

• 정부나 지자체

NPO활성화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에서도 소셜 비즈니스(SC)라는 이름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움

• 민간 : 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정무역, 유기농, 지역통화, 협동조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연대 경제 포럼>을 주도하고 있음

• 그 외 :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함께 “반 빈곤연대그룹”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배제 즉 취약계층운동그룹이나 이를 지원하는 연구자 그룹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대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짐.
에티크 등의 청년그룹은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동이 활발.

◆ 일본의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조직 분류

- 협동조합(각 협동조합법에 준거한 법인)
- 노동자 협동조합(근거 법이 없음)
- 워커즈 컬렉티브(근거 법이 없음)
- 비영리조직(NPO법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기업(SB)
- 커뮤니티 비즈니스(CB)등

3) 일본의 「사회적경제」 현황

(1) 협동조합

일본에는 1956년에 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JJC)를 설립해서 각종 협동조합운동의 연계와 ICA의 총회등에 참가를 시작한 협동조합의 국제활동에 관련된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ICA회원조직인 JA전농, JA공제연, 농림중금, 이 에노히카리협회, 일본농업신문, 일생협, 전국어협연합회, 전국 노동공제협동조합,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및 대학생 생협연대 등 12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등 총 17개에 이르는 각각의 개별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은 42개 조합이다.

여기에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컬렉티브는 각각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 대표적으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을 들 수 있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1948년 법률 제200호)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지역(광역단위에 한하여)에 사는 사람들,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만들기 위해 상호부조에 의한 자발적인 조직의 비영리단체

● 조합의 원칙

- 일정의 지역에 의한 사람과 사람의 결합(상호부조 조직)
- 조합원의 생활의 문화적 경제적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것
- 가입, 탈퇴의 자유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이 평등
- 조합원 이외의 자는 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다
- 특정의 정당을 위해서 조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조합의 사업

-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 의료, 식당 등의 협동시설의 이용사업
- 화재, 생명 등의 사고에 대해, 공제금을 급부하는 공제사업
- 조합사업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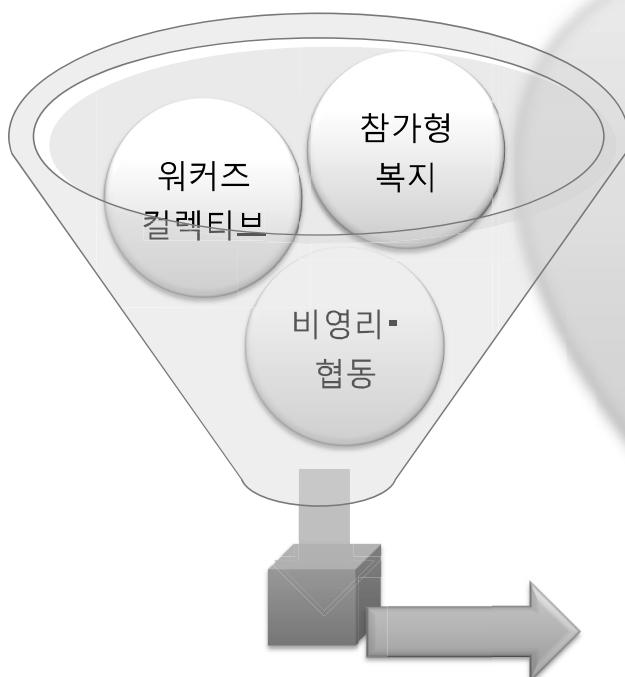
● 현황 (소비생활협동조합 실태 조사에 의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참조

- 조합수 1,036조합 조합원수 6,334만명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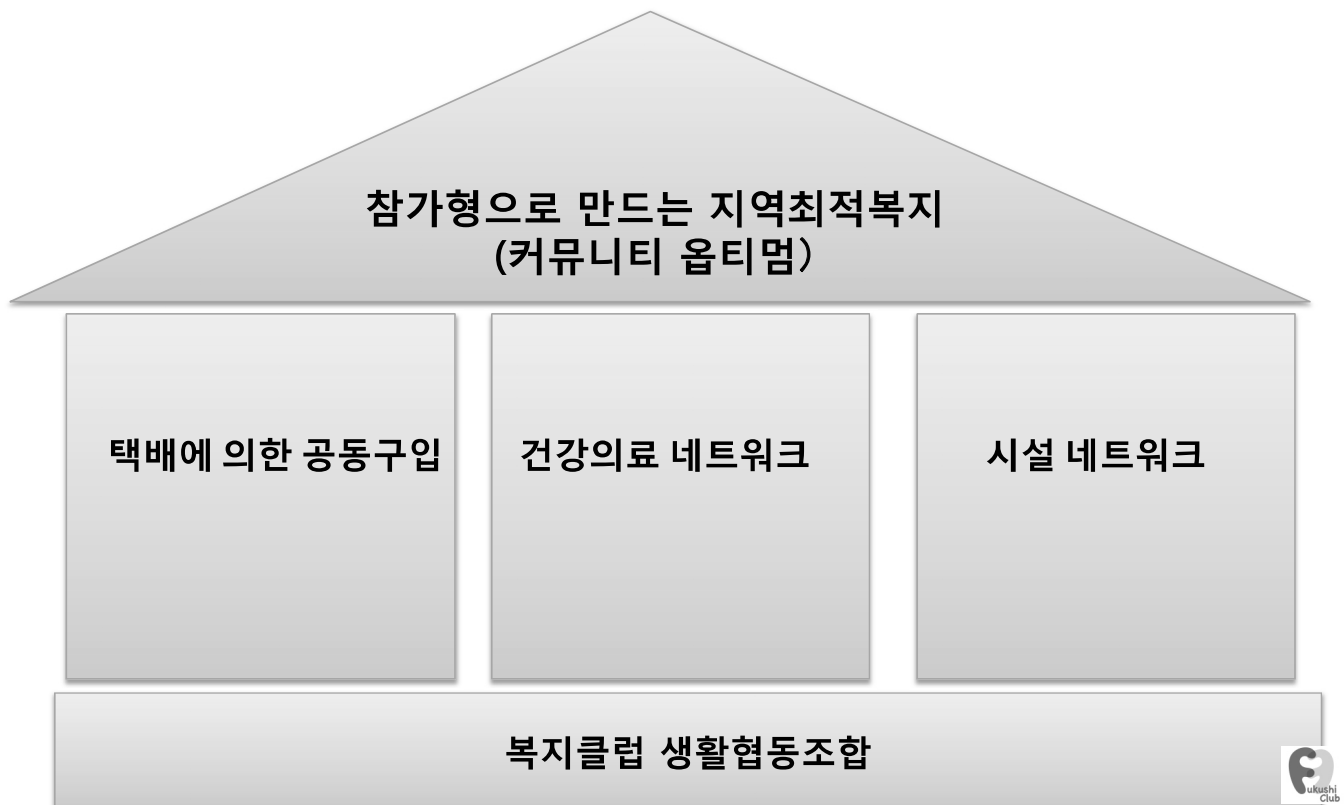
활동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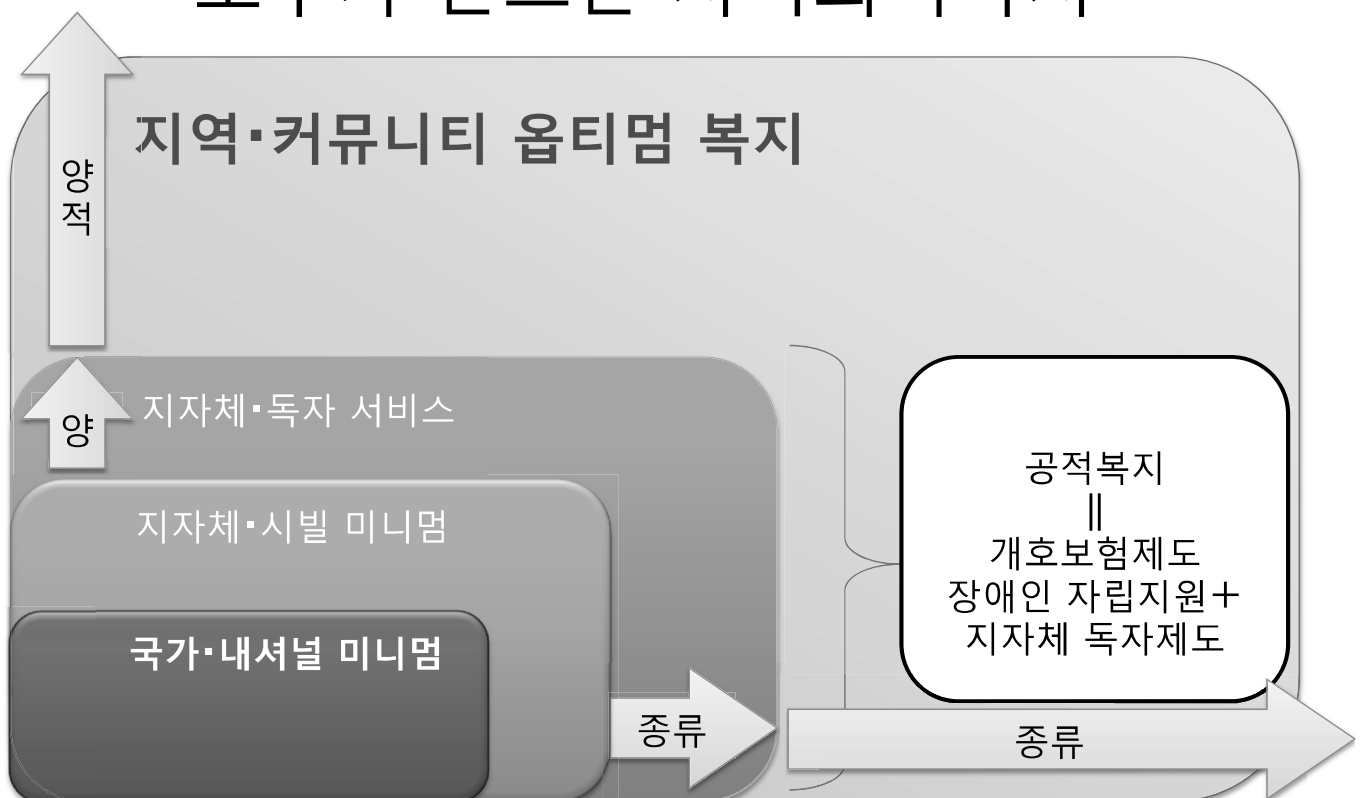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가
있어도, 생활이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싶다.

재택복지 지원시스템 만들기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부상조의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재택복지 지원시스템 만들기의 3가지 주요근간



모두가 만드는 지역최적복지



복지클럽 개요

- 명칭 :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
 - 설립 : 1989년 4월
 - 사업 : 공동구입·복지·시설·이용·공제수탁
 - 조합원수 : 15,261명
 - W.Co인 수 : 2,788명
 - W.Co수 : 84단체
 - 임직원수 : 44명
- 2008년도
(사업비)

2008년도 사업액 (사업별 내역)

공동 구입:	27억4200만엔
복 지 :	6억6300만엔
시 설 :	2억8900만엔
이 용 :	6700만엔
공제수탁 :	1600만엔
총사업액:	37억7800만엔



(2) 노동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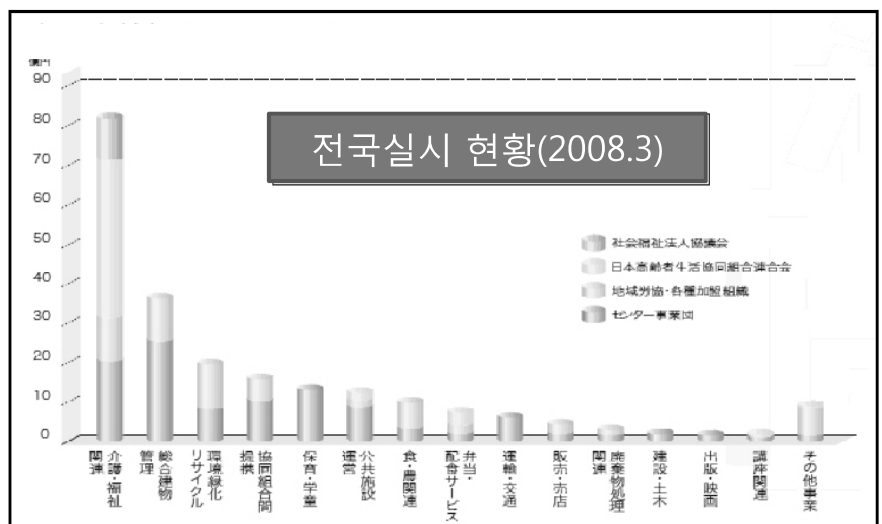
노동자 자신이 출자하고 소유와 관리를 하는 협동조합.

일본의 경우 일본 패망 후 복구사업에 투여됐던 노동자들의 실업자 운동에서 시작됨. 전체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주로 청소나 리사이클 등에서 출발하여 개호보험 도입 이후에는 개호 복지 비중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공공 시설 위탁의 지정 관리자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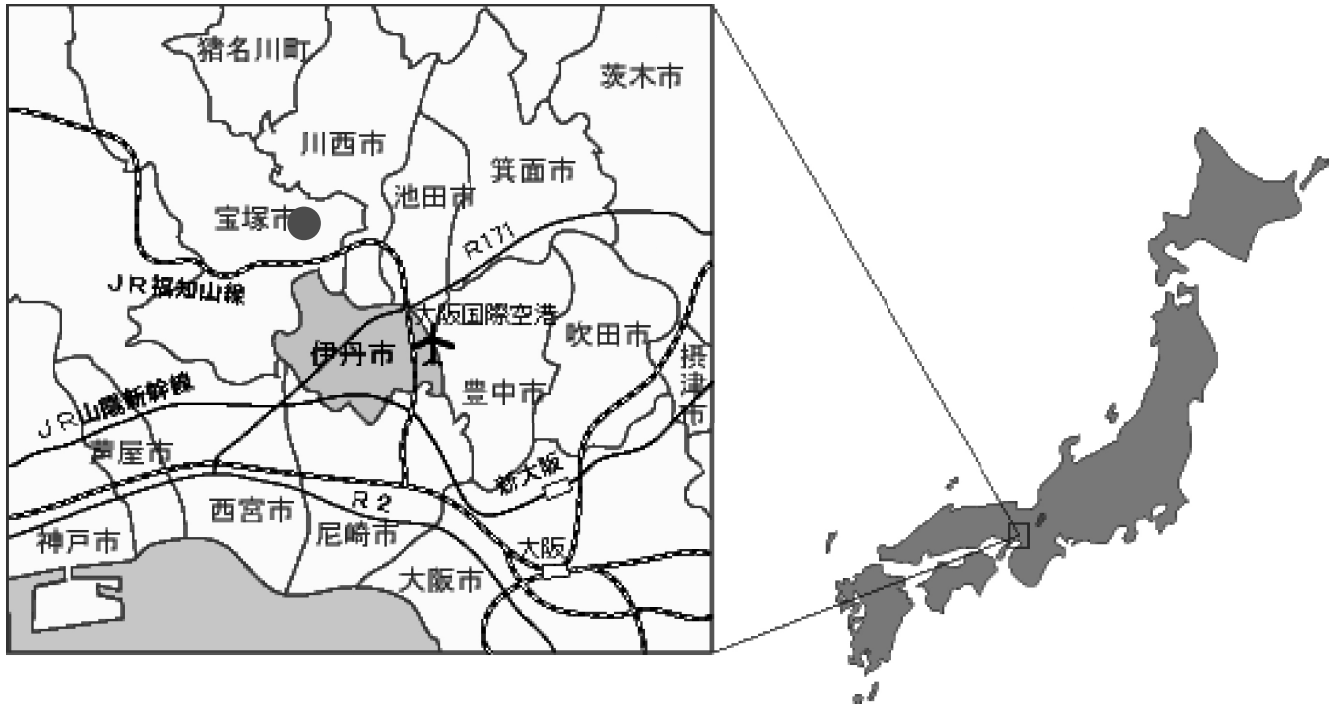
총 사업비 :

228억 5,400만엔

- 노동자 : 10,903명
- 고령협동조합 조합원 : 36,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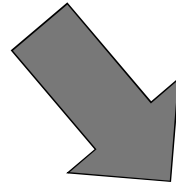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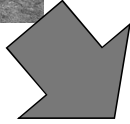


이타미 노동자협동조합 Itami city



집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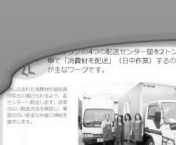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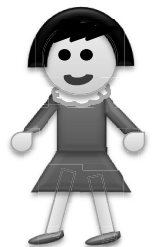


(3) 워커즈 컬렉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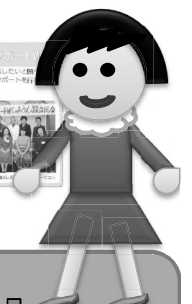
- 일하는 사람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누구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술과 문화, 경험을 살려서 모아내고, 스스로 생활하는 지역 속에서 협동해서 일하는 것
- 고용노동이 아니고, 무상노동(볼런티어)도 아닌, 유상노동=커뮤니티 워크라는 일하는 방식을 실천
- 「조치, 서비스 제공자 윤리(경영윤리·이윤 추구)」가 아닌, 언젠가 자신도 사용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의 투자윤리(돈·이윤 추구)의 마을만들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마을만들기를 실천.



다양한 W.Co



전부 17업종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부상조

(4) NPO

-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NPO활동을 참고로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 제정
- 2000년 11월 내각부 조사: 전국에 8만 8천개 시민활동단체(NPO법인과 임의단체)
- 2011년 2월 28일 현재 4만2천 1백 20개의 NPO 법인 활동 중이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특히, 지역에서 행정과의 협동이라는 방식을 통하면서, 행정과 협동함에 있어서 룰을 만드는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 문제로는 자금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성의 담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사회기업가의 개념이 보급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담당할 주체로써도 중요하게 기대됨.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인큐베이팅 및 교육과 컨설팅, 매칭 기능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 오사카 NPO센터, 다카라즈카 NPO센터 등이 있다.

사례 1

東京都(동경도) 武蔵野市(무사시노시)의
<아버지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

살롱 개최

전국의 각 지역별 NPO단체 중심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지역
적응 및 안착

NPO단체와 희망자 매칭 사업

그 외의 예 : 오치아이 삼세대 교류 살롱, 히가시구루메시 단과세대네트
워크, 아라가와구 지역활동살롱 플랫폼 등 지역별 활발히 진행

사례 2

커뮤니티의 복원과 상점가의 재생을 위한 실험 "NPO법인 ぐらす・かわさき(그라스 가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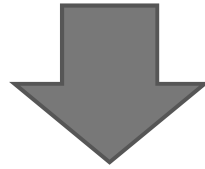
가와사키시는 동경도와 인접해 있는 가나가와현에 속한 정령지정도시이다.



그라스 가와사키: 2001년 1월 28일 탄생

*지역의 문제 발견

1. 보육의 문제-우울증, 아동학대
2. 노인의 문제-공간이 없다.
3. 상점가 쇠퇴의 문제-상권 기능 상실



지역과제 해결

(5) CB와 SC

● CB가 확산되고있는 배경

-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흐름에서
- 생활환경의 다양화의 흐름
- 지방자치체, 행정과의 파트너쉽, 협동의 추진의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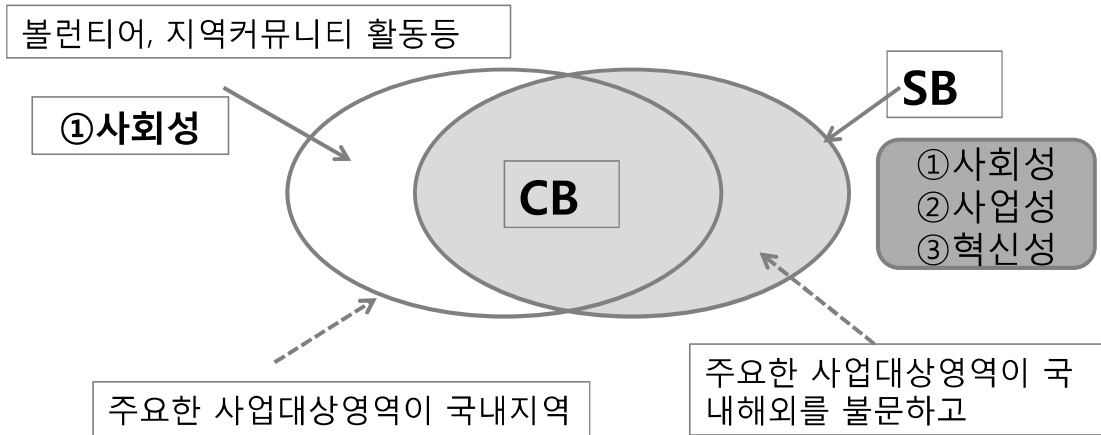
● 경제산업성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이하 CB)를 소셜 비즈니스(SB)에 포함 되어진 의미로 자리매김.

· SB의 정의 :

- ① ~ ③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체(주식회사,NPO법인 등의 조직형태는 불문하고)
- ① 사회성 : 현재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는 것을 사업활동의 미션
 - ② 사업성 : ①의 미션을 비즈니스 형태로해서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진행
 - ③ 혁신성 : 새로운 사회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고안
그 활동이 사회에 확산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CB의 정의 :

SB중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자원의 발굴, 활용 등을 비즈니스 기회로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나 사회공헌과 사업의 자립·지속적 발전의 양쪽을 실현하고자 추진



● 현황(2009)

- 사업자수 : 약 8,000
- 시장규모 : 약 2,400억엔
- 예산액 : 5,7억엔
- 지원책 :
 -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발, 광고 및 보급활동, 네트워크 구축
 - CB/SB 창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환경의 정비
 - CB를 담당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 등
- 고용규모 : 약 3만2천명

일본정부의 CB사업 관련한 부서별 정책 (2009년)

문부과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를 핵으로 하는 생애학습 활성화 사업 • 문화보ランティア 활동 추진 지원사업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투어리즘 종합추진 사업비 • 지속가능한사회 만들기를 담당하는 환경NPO 지원계획사업 • 지역의 순환형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농림수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커뮤니티 재생활성화 지원사업/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 농촌활성화 인재육성 파견 지원모델 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등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 개발능력 개발조성금 • 지역구직자 고용장려금 • 지역재생 중소기업 창출 조성금등
경제산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사업 • 농상공 연계 대책지원사업 • 지역활성화 고용촉진자금등
국토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재생 사업 • 지역재생을 담당하는 인재만들기 지원 •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사업등

사례

구루메대학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 (地域づくりなんでも相談会)

여기여기 붙어



- *누구라도 참여 가능
- *생활밀착형 테마가 중요
- *편하게 제안하고 진행

여기여기 붙어라 방식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는 치쿠고강유역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루메 대학과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해결책을 생각하는 모임이다.

'여기여기 붙어라' 방식이란?

step 1

문제, 테마를 드러내고 모은

step 2

테마를 제시한 사람이 손가락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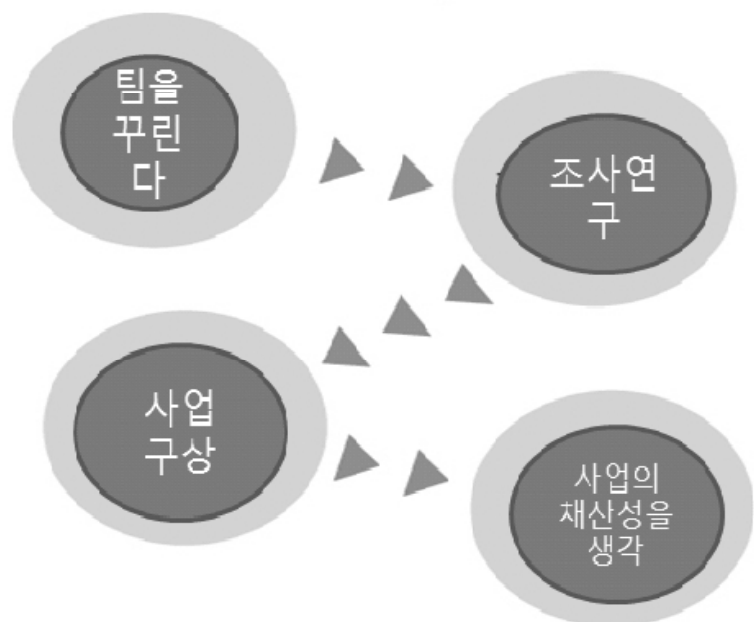
step 3

외부에서도 동참자를 모집해 팀을 만든다.

の活動は動き出しています。

start

문제해결 및 사업화를 향해



■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의 장점과 의의

- 기관을 설립했던 프로젝트를 모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응원해왔다
- 프로젝트의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에 의해 상승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환경상품의 모니터에는 상담회의 네트워크나 지역통화 프로젝트팀, 안부배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사례 : < 그룹홈>을 만드는 팀의 경우

- 1) 개호보험의 공부나 사례조사를 시작, 사업 이미지 만들기
- 2) 토지나 빈집 등을 함께 찾는다
- 3)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설계한다.(조직,운영,자금)
- 4) 관계기관,행정의 협력구조를 모색한다.

■ 현재 진행중인 사업

*젊은층

학문과 현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자기개발에 유익 젊은이들이 능력을 탐색하고 사회와 접촉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유를 생각하는 장으로써의 의미

* 약물 의존 문제 해결

약물 의존자는 현재 병원 또는 형무소 이외에 갈 곳이 없다. 일상의 생활공간 안에서 약물의존으로부터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가구의 인터넷판매

신뢰로 연결된 인적망을 만들어, 좋은 가구의 판매 및 수리를 행하는 사업 구상

•치쿠고강 유역의 인공산림 보전 프로젝트

* 시니어세대 즉 노인세대들의 정보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사업

■ 향후 추진 사업

- 치쿠고강을 즐겁게 만드는 모임
치쿠고강 유역권의 관광진흥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획을 세우고 소개
- 도시와 농촌의 인연만들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시정촌단위가 아니라, 마을과 단지 등으로 계약하여 농산물 특판이나 교류 실시
- 지역만들기 활동자금지원 프로젝트
NPO등 지역만들기를 하고 있는 단체나, 볼런티어 예금 등의 자금조달방법 고민과 동시에 활동자금 지원
- 지역통화 이용 촉진
지역통화 이용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촉진 시스템 구상
- 빈점포를 이용한 다각적 교류회
빈점포를 이용하여 행정, 대학관계자, 시민 등 누구라도 의견교환이 가능한 살롱만들기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일본의 사회적 경제 영역 총 정리 속에서
: 특히, 충청남도 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일본에서 보여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스펙트럼이 충남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

• 정책적 제언

-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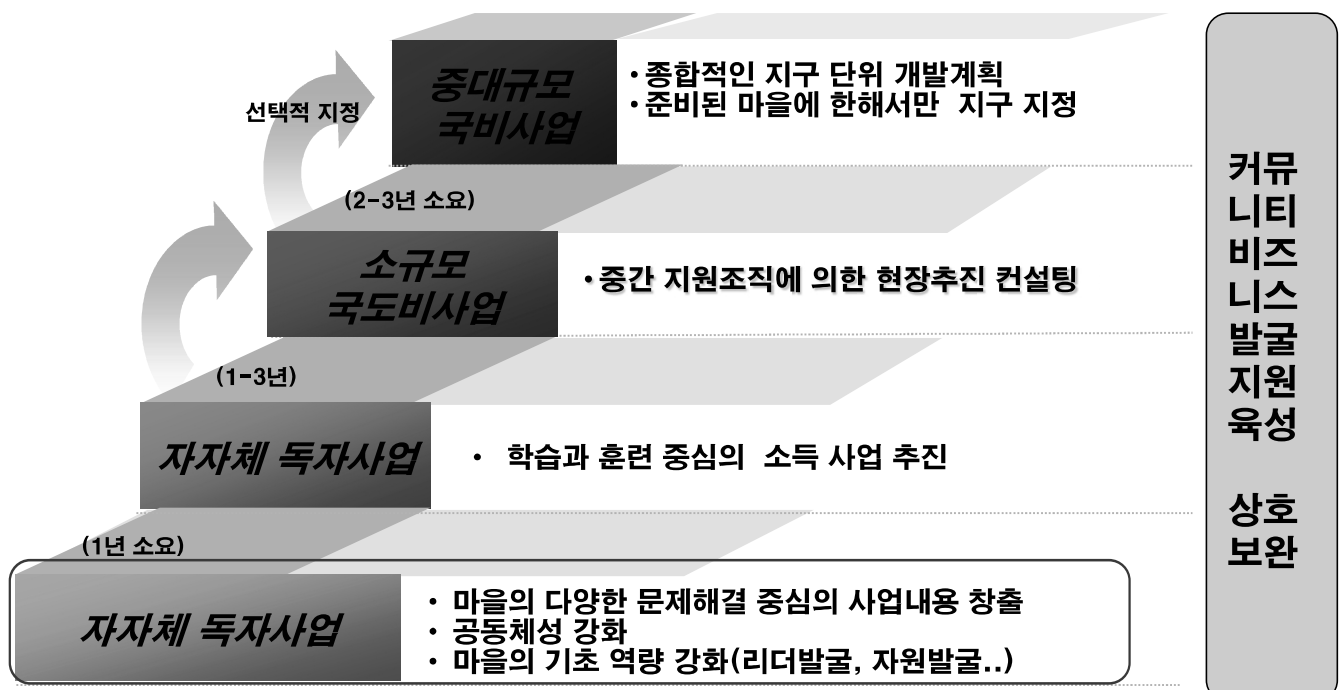
(NPO와 중간지원조직)

- 그 활동 가운데 지속적인 지역과제 해결형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CS 또는 BS로 발전
- 정보의 수집, 공유, 모델의 확산 필요
-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통한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또는 시스템 만들기

제안 : 단계별 지역 육성 계획 수립

→ 행정 지원 시스템 통합 : 담당부서 연합회의

→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 CB, 마을 만들기



지역 관계망 만들기

